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 옥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지방에 정치가 있다

광역단체장 자리 수는 각 지역과 지방에서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치 과정과 갈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특정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승리했다고 하자. 그러나 미시적으로 부산 내 여러 지역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결코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거시적인 승패 결과만 보면 모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지역과 지방의 이슈와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정 중심 사고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무슨 정치와 정당이 필요한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러한 행정 중심의 사고는 정치 불신과 결합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론

으로까지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정치가 중앙보다 지방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먼 저 가정, 학교, 직장을 포함한 그 어떤 작은 공간 간의 충돌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 간 이익과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위에서도 다양한 이익과 가치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의 분배를 위한 정치과정은 분명 존재한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단순 행정 서비스인 '누 치우는 일'에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중 어느 동네부터 먼저 치울 것인가에 대한 이해 갈등이 있다. 또한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얼마나 고려할지에 대해서도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앙에서의 갈등보다는 지역과 지방에서의 갈등이 유권자에게는 더 중요하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 형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중앙정치 요인보다는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과 지방의 이슈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지방 이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지방 분권화가 덜 진행돼 지방의 힘이 아직 중앙에 비해 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여전히 지역과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중앙정치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는 지방정치의 합인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지지를 생각해보자. 대통령 지지율이란 결국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에서 '지방정치 요인을 매개로 해서' 이뤄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장을 역임한 오닐(Tip O'Neil)이 남긴 유명한 문구인 '모든 정치가 지방에 있다'는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社說

‘임을 위한~’ 부정한 대통령의 5·18 인식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17일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3·1절 등 국가기념일에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곡 지정이 전례가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례가 없으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국가보훈처와 다시 논의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기념곡 지정에 반대해온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논의해 달라니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거부하는 마당에 국가보훈처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리는 만무하다. 박승훈 보훈처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를 신속

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한 술 더 떠 국가기념행사 중 5·18만 기념곡이 없다며 48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체곡을 공모하겠다는 작태마저 저질러왔다. 추모곡으로 지정 사실화 된 마당에 국민의 혈세까지 쓰면서 대체하겠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잘 알려진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34년간 추모곡으로 널리 불려온, 5·18의 연장 선상에 있는 숭고한 노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기념곡 지정은 2013년 국회에서 여야가 압도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안이다.

이제 기념곡 지정은 정부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친명한 만큼 당론을 정해 기념곡 지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늘어가는 미제 살인사건, 경찰은 뭘 하나

경찰이 14년 전에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재수사가 나서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장기 미제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의 해결 의지나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서 나오자 방치했던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은 18건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살인을 집지 못한 살인사건이 10건에 달하고 전남에서도 8건이 해결되지 않아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제사건이 많은 것은 결국 사건 해결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은 장기 미제사건을 2명의 전담팀에 맡기고 있고 전남경찰청 역시 지난 2013년 2월에 조직한 전담팀을 불과 1년 만에 성과없이 폐지해 버린 것이 단적인 사례다.

홍약범 검거와 단죄를 하지 못하면 경찰의 존재 의미를 사라지게 된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잔인한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경찰은 도대체 무슨 업무에 매달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숨어 지내는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오히려 시효가 지나 수사가 종결되기를 고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법하다.

미제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다급한 사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데 일처리의 우선 순위가 없는 ‘수사 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미제가 쌓여 갈수록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경찰은 당장 전담팀을 보강하고 중범죄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민생치안 확립을 통한 시민 신뢰 유지가 경찰의 제1 책무다.

의료칼럼



이 준 한
하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장

알레르기성 비염

관련이 있는 것을 화분증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고초열)이라 하며, 만성적이고 계절과 관련없이 연중 계속되는 것을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이라고 한다. 화분증은 흔히 ‘꽃가루 알레르기’라 불리는 알레르기 비염으로써 썩이나 잔디 등의 풀 꽃가루, 자작나무 등의 나무 꽃가루 등이 원인 인 경우가 많으며 특정 계절에 재제가 발작증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은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중 증상이 있고, 가장 흔한 항원으로 집먼지 진드기가 있고, 이외에도 곰팡이, 직물류, 담배, 식품,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항원이 될수 있다. 최근에는 바퀴벌레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통년성 비염환자도 환절기에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크게 회피요법, 약물치료, 면역치료로 나눌 수 있다.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은 원인 항원이 코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지만, 실현하기 진드기가 코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지

증상 완화를 위해 쓰일 수 있다. 먼지가 많은 카페트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이불이나 베게 등 침구류는 자주 햇빛에 말려 알람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털이나 비듬이 원인인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회피요법은 가장 안전한 치료방법이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에 일부 적응이 되는 환자에 대해 한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알레르기면역치료는 항원에 대한 탈감작을 유도해 면역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알레르기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유일한 근본치료법이다. 설하면역치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십년 동안 피하 면역주사가 유일한 면역치료로 사용됐으나, 근래에는 많은 병원에서 설하면역치료를 처방하고 있다. 설하면역치료는 비침습적이며, 자가복용이 가능하고, 피하

면역주사에 비해 부작용의 빈도와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

설하면역치료시 약의 투여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비침습적이다. 알약 상태의 항원을 허밀에 2~3분간 유지한 후 삼키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항원이 구강점막과의 접촉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항원은 공복시에 투여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며, 투여 후에는 손을 씻어 눈과 코가 항원에 간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설하면역치료의 투여기간은 연구에 따라서 다양한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3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년~1년 반 정도까지 시행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비염 치료에서 면역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이점은 면역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약효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강내 소양증 및 부종과 같은 국소자극증상, 구역, 구도, 설사 그리고 복통과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모두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거나 저절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 고

동백숲에서 배우는 지혜



박 영 길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장

사 동구'에서는 동백꽃이 막걸리집 여자의 목 선 육자배기 가락으로 남았고, '선운사'에서는 내 맘처럼 슬픈 동백꽃을 보면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라 했다. 선운사 동백숲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천년고찰을 지켜내기 위한 성현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선운사 동백숲은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고, 동백기름으로 사찰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조성됐다고 한다.

산록활엽수인 동백나무는 잎이 두껍고 수분 함유율이 높아 산불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기 하는 특징이 있어 산불이 사찰 건축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내화림(耐火林)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백나무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다. 붉은 꽃(오죽은 흰색, 분홍색 등도 있지만)으로 인해 불리는 정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눈이 내리는 겨울부터 봄이 시작하는 초봄까지 꽃이 피어 굳은 이상(理想), 청령, 절조, 장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국민기수 이미지의 '동백이끼'에서처럼 동백꽃이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강계 멍이 들어 버리는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밖에 혼례식장에서 동백나무를 대나무와 함께 자기 항아리에 꽂아 부부가 함께 오래 살기를 기

원하기도 한다. 동백나무는 전라남도의 도화(道花)다. 전남 남해안 해안가 등지에 동백나무 조림지와 자생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장흥 천관산의 동백숲 자생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 151호로 지정돼 있다.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곱잡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등과 혼생하고 있으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천관산 동백숲은 약 21ha에 6만여본의 동백나무가 자연군락을 이루고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동백나무 집단지생지로 한국 기네스에 등재돼 있다. 생태계의 보고로 천혜의 자원인 동백숲의 보전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면서 관광 휴양산업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백나무는 산록활엽수로 산불에 강한 수종이다. 이러한 동백나무가 집단으로 자생하는 곳은 산불에 강한 임상을 이룬다. 반면 소나무만 단순림으로 분포된 곳도 많아 대형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도 동해안 산불 당시 소나무 단순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

에 취약했던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되는 큰 재난을 겪은 바 있다. 500년 전부터 내화수림대를 갖추고 있던 선운사 동백숲이 돋보이는 까닭이기도 하고 전남지역의 난대활엽수종인 동백나무 자생지 등에서 대형산불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이이기도 하다.

숲이 울창해 집에 따라 산불은 대형화와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산불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산불 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산불로부터 천년고찰인 선운사를 지켜내기 위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를 조성했던 성현들의 지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천년고찰을 지켜냈던 성현들의 지혜를 본받아 산불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단지 조림지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찰, 민가 연접지역을 동백나무 등 상록수나 상수리나무, 곱잡나무 또는 고로쇠나무 등 내화 수종으로 내화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화수림대 조성이 우리나라 모든 산림에 확대돼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얼마 전 화순 적벽을 다녀왔다. 구불 구불 산길을 따라 돌아 들어가니 비로소 드러내는 비경(秘境). 사진으로만 보아 온 백두산 천지의 모습이 이리할까. 깎아지른 듯한 붉은 적벽이 맑고 고요한 물에 잠겼는데 그 수려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얼마 만인가. 이곳을 다시 찾은 것이. 생각해 보니 40년쯤 된 것 같다. 꽃피었던 대학생 시절. 우린 데이트팁시와 버스 에 몸을 싣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달려 이곳에 왔었지.

그때 강 건너 적벽을 바라보며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던 여학생은 지금 어느 하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시 아스라한 추억에 잠겨 본다.

적벽동천(赤壁洞天).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선생이 그렇게 이름 붙였었는데 '동천'(洞天)이 무엇이던가. 선운사를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말함이 아니던가.

소동파가 노닐었던 중국의 적벽에 버금간다 해서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선생이 적벽이라 명명한 곳. 신선들이 살 만큼 아름다운 곳. 하늘과 통하는 곳. 그리고 보니 적벽동천은 고을 '동'(洞)이 아닌 통할 '洞'(洞)으로 읽어 '적벽동천' /이홍재 논설고문

(赤壁洞天)이라 해야 맞을 듯도 싶다. 적벽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것은 동북담 때문이었다. 동북수원지는 1970년대 초 건설돼 80년대에 지금의 규모로 몸집을 불렀는데 건설 초기엔 제5수원지라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개의 수원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4수원지(일명 석곡 수원지, 60년대 축조)는 복구 청동동의 '청풍동터' 부근에 있다. 50년대에 생긴 제3수원지는 산동교 아래 극락강변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광주에서 처음 건설된 제1수원지(20년대 축조)는 중심사 계곡 입구에 있었는데 현재는 더 이상 용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수원지(30년대 축조)는 화순 너릿재 못 미처 왼쪽 용연동에 있다. 옛것에 적벽에 이어 34년 만에 개방된 제2수원지를 찾았다. 잔잔한 호수는 여인들의 장신구에 매달린 비취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용수폭포로 이어지는 오솔길엔 버들개지가 막 울음 트기 시작한다.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버들탄이 천 가지 만 가지 늘어뜨려(楊柳千絲綠)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었다. (人春消息最先知) /이홍재 논설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다자언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